

# 전교조 합법화 앞두고 교육계 양대노조 '모락모락'

### 덩치 압도적이지만 강성... 교사노조연맹 교육부와 소통

교육부가 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과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면서, 향후 교육계가 교사노조와 합법화를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양대노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수로 보면 전교조는 6만명에 달하는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1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지역과 급별, 부문별 노조 연합체인 교사노조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해 12월 설립신고를 통해 만들어졌다. 교육부와의 지난 4월 상견례를 거쳤고 7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현재 교육부와 교사노조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이날 "우리

노조는 지역별, 단위별 연합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중앙집권적"이라며 "교섭에서도 주로 거대담론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방향이 다르다. 전교조 합법화가 되더라도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간 감정은 좋지 않다. 교사노조연맹은 중앙집권 형태인 전교조의 운영 형태에 반대하며 '분권형 교육과 신별노조'를 지향하는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새로 꾸린 교원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복수노조에 원칙적으로 반대해 내부적으로 복수노조가입 금지 규약을 두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분열의 핵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교육계 내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교사노조연맹에 힘을 실을 경우 수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교육계 내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데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대체로 교원노조로서 합리적인 요구라고 받아들인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교사노조연맹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큰 재정이 소요되거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면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12월 중 실무교섭을 시작해 2월 중에는 최종 협약을 맺는 일정을 목표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은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 전교조가 지난 200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와 번번이 각을 세우다 단체교섭이 결렬됐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제노동기구(ILO) 4가지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는 하지만 "청와대가 직권취소를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27일부터 즉각 합법화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1박2일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6월 전교조 합법화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더 앞당기려는 것이다.

/뉴스시



전북체육회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청소년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 구현

### 전북체육회, 9개 학교서 청소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은 0교시, 방과후, 자유학기제 등 학교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도내에서는 전주 용소초와 군산 임피중, 무주 안성중 등 총 9개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8개 학교는 건강체력프로그램이 1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됐다. 건강체력프로그램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건강상

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피트니스 중심으로 꾸며졌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스포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기종목(츄크볼, 빅발리볼)을 재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이뤄졌고 총 24차례(주2회)에 걸쳐 진행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스포츠활동을 일회성으로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닌 평생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너 많은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농축산 적용은?

### 전문가 모여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기술 활용 모색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하 사업단)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라는 축산 기술을 개발해 가축의 질병과 약취, 분뇨처리, 생산성 저하 등 축산 4대 난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양돈 농가에 적용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자라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여 20% 이상 돼지 폐사를 방지할 수 있고, 30% 이상 축사 약취가 감소하는 한편, 3% 이상의 생산성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단의 지난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유관 기관과 기업, 농가 등 축산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분야로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전북대 등지에서 개최됐다.

한우와 돼지·미래육종, 기능유전체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전북 농가·한우 수출 전문가·사료 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박승술 삼락농정 축산분과위원이 정읍시 한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과 축산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분야로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28일 전북대 등지에서 개최됐다.

우 농가 육종 및 개량 현황을 발제했고, 이승재 한우수출사업단장은 연구 현황 및 성과 연계방안을, 감동근(췌

카칼에그리프리나 박사는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 남관초 '예술꽃 씨앗학교' 선정

완주군 남관초등학교(교장 장남덕)는 2019학년도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업이다. 완주 남관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매년 약 4,000여 만원을 지원 받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교육 활동 운영, 교육기자재구입, 전문예술강사 초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남덕 교장은 "학생들의 감성 증진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생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 도교육청, 내년 3월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8곳 발표

### 초빙형 5곳·내부형 3곳... 내달 6일까지 지원자 접수

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자 교장 공모제 운영 학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로 지정된 곳은 총 8개교로, 초빙형 5개교·내부형 3개교다.

초빙형은 전주서곡초·이리팔봉초·성덕초·대강초·상하초 등 5개교, 내부형은 이리북초·백안초·정읍고 등 3곳에서 운영된다.

초빙형인 전주서곡초 외 4개교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이리북초와 백안초의 경우도 내부형이지만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다만 정읍고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교장자격증 소지자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다.

교장공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대상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직접 접수하거

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며, 1차 지원자가 2명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모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학교장으로 임용되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을 공모해 학교와 지역사회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서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생태·환경적 소양 갖춘 미래 인재 양성한다

### 도교육청-국립생태원 협약 체결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분청에서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에 자리한 국립생태원은 전북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자연 상태의 동물과 식물, 습지 환경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산실이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기후별 동물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에코리움과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에코케어센터, 어린이를 위한 하다람 놀이터가 갖추어져 있으며, 체험학습실, 영상코너와 도서자료실 등에서는 환경·생태학습을 위한 특별한 수업활동을 꾸밀 수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생태 및 환경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운영 및 교육자료 제공,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협력, 생태원의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시설의 활용 등 두 기관이 생태·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IT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결합하여 융복합적 학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상황에서 생태·환경적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